

부족한 저를 신앙인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

황헌주 아가다 / 진천

천주교회에 입교하게 된 계기는 1984년 교황 바오로 2세께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경축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실 때 여의도에 많은 신자들이 모여 성인 103위 시성식을 TV로 보고 감동을 받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1983년 3월에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아 마음이 허전하던 차 많은 신자들이 모여 머물렀던 자리가 너무 깨끗하고 엄숙히 경축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집에서 가까운 서울 상도동 성당을 찾아가 수녀님께 면담하고 교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진천) 어머님만 천주교회를 다니고 계셨었고 남편 시몬은 초등학교 때 미국 신부님께 세례를 받고 냉담 중이었습니다. 카톨릭 집안으로 결혼했지만 어머님만 다니시고 손윗 형님은 불교를 믿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성당에 다니라는 권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6개월 교리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으려 하니 남편 시몬과 같이 관면혼배를 해야 세례를 주신다기에 너무 난처했습니다. 남편은 일하러 지방에 있었던 때라 교리 공부를 했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6개월 교리 공부를 하고 남편(시몬)과 관면혼배를 하고 난 후 1985년 5월 25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해 큰아들(미카엘) 3년 후 작은 아들(라파엘)을 출산 후 사업이 잘 안되어서 아들 둘을 데리고 이곳 진천으로 내려와 작은 가게를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1991년 2월 24일 견진성사를 받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친정 부모님과 일곱 남매 모두 천주교에 입교시켜 모든 가족이 카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카들 사돈어른들 그리고 불교를 믿으셨던 형님 모두 천주교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매 모임도 해마다 1박 2일로 성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장소를 정하고 다녀오는 연중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회사는 큰아들(미카엘)에게 맡기고 시간이 되면 남편(시몬)과 함께 성지순례지인 동유럽, 서유럽, 이태리(바티칸)도 다녀오고 전국 투어 성지순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교구 신앙 순례 성당 모두를 완주하여 2019년 6월 2일 저희 부부 모두 완주증을 받았습니다. 또, 2013년 'ME'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혼자서 새해 첫날 0시에 성모동산에 가서 썩썩 부는 찬바람을 맞아가며 성모님께 촛불 봉헌과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성모동산에서 성모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던 그 시간은 행복과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혼자 기도드리려니 무섭기도 하여 다음 해부터는 남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어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웠는데 옆에 남편이 있고 바로 앞에 성모님이 계시기에 지금은 편안하게 기도드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 성당에 갈 수 없어 성경 필사를 해서 2024년 4월 5일 주교님께 성경

필사 축복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성경 필사와 성경 통독을 또 시작했습니다. 성당에서는 레지오에 입단하여 매괴의 모후 회계를 맡고 있으며 성심회(성물의 방)와 주보 접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상님들은 배티성지 가까운 곳 삼박골에 사셨습니다. 조부모님께서 양자를 가시어 이곳 진천으로 이사 오셔서 사셨습니다. 삼박골은 큰집 조상님들이 사셨던 곳입니다. 제가 중학교 지금으로부터 56년 전 방학이 되면 삼박골에 놀러 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 비가 새는 삼박골 큰댁은 오촌 아저씨 부부(친정아버님 사촌 형님)가 사셨습니다. 56년 전 삼박골에는 두 가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알고 보니 저의 선조들이 무명으로 순교하셨다 하기에 저희 자매들은 배티성지를 찾을 때마다 삼박골에 들려 큰집이 사셨던 집터와 주위 조상 묘소를 찾아뵙고 읍니다. 배티성지에 가서 조상님들의 발자취를 알아보려고 하던 중 이 아가다 수녀님께서 ‘배티성지 중심으로 사셨던 순교자들의 생활이 담겨 있어요.’하시며 책을 권해 주셨습니다. 「은화」 상. 하권을 구매해서 자매들과 같이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할머니께서 큰집 오촌 아저씨들 이름을 부르실 때 베드로, 야고보라 부르시기에 제가 그때는 본명인 줄 모르고 왜 아저씨들은 영어로 이름을 지으셨냐고 할머니께 여쭙본 일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오촌 아저씨, 자녀들은 서울, 청주로 이사 가서서 사시고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 많으셔서 소식도 끊겨 이제는 알 수가 없어 너무 아쉬움만 남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매들은 배티성지를 자주 찾아가 무명 순교자 14인 묘에 참배드리고 김웅열 신부님께서 매월 은총의 밤과 이현로 신부님의 감사의 밤도 자주 참석하고 기도드리고 왔었습니다.

이곳 진천으로 와서 남편 사업을 같이하며 아들 둘을 돌보며 정신없이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과일을 깎으려고 칼로 그만 왼쪽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에 칼이 튕겨져 인대까지 끊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진천 정형외과를 찾아가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3일 후 퇴원하고 병원을 다녀 다 치료된 줄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 다시 인대가 살 속에서 풀려 엄지손가락이 접히지 않았습니다. 2001년 서울 아산병원에 예약해 놓고 배티성지에서 최초의 조선대목구 신학교겸 사제관 봉헌식에 참석한다고 신자분들과 가고 있는데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예약한 날인 줄 모르고 배티성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예약해 놓은거라 바쁘게 살다 보니 깜박 잊어버린 것입니다. 배티성지 가는 것도 제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고 있구나 하며 배티성지에 가서 치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배티성지 성역화를 위해 1평 땅값 5,000원(그때 가격)이라 해서 그날 병원 갈 비용을 모두 기부금으로 드렸습니다. 웬지 맘이 너무 좋고 금방 제 손이 치유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병원도 안 가고 주님의 은총으로 꼭 치유될 것을 믿으며 배티성지에 자주 가서 치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고 손을 펴보자 엄지손가락이 저절로 폈다 접었다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며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의 전구를 통하여 치유해주셨습니다. 103위 성인 호칭 기도와 함께 매일 5번씩 최양업 토마스 사제 시복시성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선교한 내용입니다.

남편 모임에서 부부 동반으로 지난 5월 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건 예수님, 성모님, 기도서, 묵주입니다. 도착하면 예수님, 성모님께 먼저 기도하는 저희 부부입니다. 일행 중 한 부부가 잠시 저희 방에 들었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당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우리 일정을 위하여 가이드가 1층 로비에 모이라고 해서 갔는데 마침 오후 6시 삼종기도 시간이 되어 제 휴대폰 알람이 울려 남편(시몬)과 잠시 삼종기도를 드렸습니다. 삼종기도가 끝나니 옆에서 보고 있던 일행들이 물어오기에 프랑스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을 설명하며 성당 종소리가 울리면 부부가 일손을 멈추고 삼종기도(저녁) 드리는 거라 했더니 보고 있던 한 친구 부인이 ‘나도 성당에 가고 싶었는데….’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희 방에 오라 해서 카톨릭에 대해 알고 있는 한 열심히 선교하고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서울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성당이 있는데 꼭 성당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여행 일정이 끝나는 날이라 모시고 간 성물, 예수님, 성모님, 성수물을 친구 부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분은 5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아 완치되어 지금은 충남 보령에 전원주택을 짓고 남편과 서울을 오가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꼭 두 손을 잡아주고 친구 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 휴대폰에 저장하며 병자의 기도해준다고 했더니 너무 기뻐 좋아하며 천주교회에 입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주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고 성당에 다니며 그동안 주님께 받은 은총과 체험을 이야기하며 우리 오래전부터 알게 된 친한 친구처럼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7남매 가족 30여 명을 입교시켰고 아는 지인분들도 입교시켰습니다.

저희집 가훈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테살로니카 1 서 5장 16, 17, 18절)로 정해놓고 저희 부부는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위에 모범 성가정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 성모님께 오늘도 감사기도 드리고 감사 노트도 매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